

##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mponent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Emotional Factors  
on Preschooler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최인숙(In Suk Choi)<sup>1)</sup>

이강이(Kangyi Lee)<sup>2)</sup>

###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sex differences in 5-year-old preschoolers' aggression according to the type of aggression (overt, relational) and the effect of component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SIP : interpretation, goal clarification, response generation, response evaluation) and emotional factors (emotionality, emotional knowledge, emotion regulation) on their aggression. The subjects were 112 5-year-olds (56 boys, 56 girls) and their 11 teachers recruited from 9 day-care centers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 Each child's SIP and emotional knowledge were individually assessed with pictorial tasks and teachers reported on children's aggression, emotionality, and emotion regulation by questionnaire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sex difference only in the preschoolers' overt aggression. Overtly aggressive response generation in SIP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preschoolers' overt aggression while anger of negative emotionality in emotional factors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preschoolers' relational aggression.

**Key Words** : 유아(preschoolers),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사회정보처리(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정서요인(emotional factors).

\* 본 논문은 2009년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1)</sup>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박사후 연수 연구원

<sup>2)</sup>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기금부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Kangyi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 kangyil@snu.ac.kr

##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범죄와 폭력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폭력이나 성인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아동기 공격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선행연구(Cummings, Iannotti, & Zahn-Waxler, 1989)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발달 초기에 공격성이 발현되었다가 사라지지만 일부 아동에게는 그 초기 형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청소년기 이후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아동기 초기의 공격행동이 공격성의 초기 발달 경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간 아동의 공격성 연구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기의 공격행동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Tremblay, 2000).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Moffitt, 1993)에서는 발달초기에 발현된 문제행동이 성인의 반사회적 행동 패턴을 보일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격행동을 초기에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고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유아의 공격성 발달의 기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Little, Jones, Henrich와 Hawley(2003)는 공격성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공격성이 크게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두 개의 하위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현적 공격성은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이며(Coie & Dodge, 1998),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관계에 해를 입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나 위협을 포함한다(Crick, Casas, & Mosher, 1997). 초기 공격성 연구는 외현적 공격성에 집중되어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라는 견해가 일반화 되었지만, 이후에 다른 유형의 공격성, 즉 관계적 공격성을 함께 비교한 여러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onica, 2003; Crick & Grotpeter, 1995). 또한 연령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를 고찰한 발달 연구자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Björkqvist, 1994).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모두 8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소수 연구(Crick et al., 1997;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McEvoy, Estrem, Rodriguez, & Olson, 2003)에서는 공격성 유형에 따른 성차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외현적 공격성뿐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 또한 아동의 사회심리적 부적응(Crick & Grotpeter, 1995)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연령에 따른 공격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 유아의 공격성에서도 성별에 따른 분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개인 변인으로는 아동의 인지요인과 정서요인이 주목을 받아왔다. 인지-행동주의 관점에서 아동의 공격행동은 자극이 되는 사건을 개인이 지각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유발된다(Pettit, 1992).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방식을 강조한 사회정보처리 모델(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에 따르면, 사회적 정보의 세련된 처리는 유능한 행동을 가져오는 반면에 공격적이거나 결함이 있는 정보처리는 공격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을 가져온다(Crick & Dodge, 1996). 사회정보처리(social information processing)의 과정은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상대의 의도를 포함한 사회적 단서에 대한 부호화와 해석, 목표의 설정, 가능한 행동반응의 생성, 생성된 반응의 평가 및 가장 적절한 반응의 선택, 선택된 반응의 실행으로 구성된다.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사회적응과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해석, 목표설정, 반응생성, 반응평가와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고찰했다. 먼저 갈등상황에서의 상대의 의도에 대한 해석, 다시 말해 적대적 의도귀인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Orobio de Castro et al., 2002)한 결과에 따르면, 공격성 수준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선행연구에서 공격적 아동은 비공격적 아동보다 상대의 의도를 더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남아와 여아를 모두 포함한 학령기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의도귀인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경우에는 선행연구(Crick, Grotpeter, & Bigbee, 2002)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여 일반유아의 의도귀인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정보처리의 목표설정은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최근에 추가된 구성요소로 연구가 미진한 반면에 반응생성과 반응평가는 외현적 공격행동과의 관련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아동이 산출할 수 있는 반응의 수와 산출 반응의 유형을 조사한 선행연구(곽금주, 1998; 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에서는 공격적 아동이나 비인기집단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산출하는 반응 수가 적었고 산출한 반응도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반응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대, 반응실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등을 포함하는 반응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Crick & Dodge, 1989; Crick & Werner, 1998; Quiggle et al., 1992)는 공격적 아동의 경우 공격적인 반응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격적 반응을 외현적 공격반응과 관계적 공격반응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외현적 공격성뿐 아니라 관계적 공격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공격적 반응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아동의 공격행동이 사회적 정보의 처리에 대한 특정한 방식을 조건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선행연구들(Crick, Grotpeter, & Bigbee, 2002; Dodge, 2006; Dodge, Bates, & Pettit, 1990)은 대부분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가상 상황을 기초로 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해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를 평가하면서 이들과 외현적 공격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그친 반면에 유아의 사회정보처리와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유아의 사회정보처리에 관한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정보처리의 구성요소간의 관련성(곽금주, 1998; Werner, Cassidy, & Juliano, 2006)을 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임상 집단의 유아와 일반 유아 사이의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가운데 반응생성에서의 차이(Coy, Speltz, DeKlyen, & Jones, 2001)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사회정보처리의 각 구성요소가 유아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공격성의 개인차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아동의 인지요인뿐 아니라 정서요인이 특정 상황에서의 반사회적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Dodge, Coie, & Lynam, 2006). 아동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정서적 능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가 개입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정서요인이며, 구체적으로는 정서지식, 정서성, 정서조절을 포함한다(Arsenio, Cooperman, & Lover, 2000; Hubbard & Coie, 1994; Saarni, 1999).

아동의 정서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

성은 여러 선행연구들(Denham, Blair, DeMulder, Levitas, Sawyer, Auerbach-Major, & Queenan, 2003; Eisenberg & Fabes, 1992)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연구의 관심은 공격성 자체보다는 주로 사회적 능력과의 일반적인 관련성에 집중되었다. 정서와 관련된 요인들 가운데서 정서지식은 선행연구(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에 의해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정서적 단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회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지식이 이후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는 요인이입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Denham et al., 2003),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과 외현화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Arsenio와 동료들(2000)은 유아의 정서지식과 공격성 사이에 부적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했지만, 학령기의 일반 아동이 보이는 정서지식과 외현화 행동에 관한 연구(Cook, Greenberg, & Kusche, 1994)에서는 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서지식이 실제로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서성과 아동의 공격성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좌절-공격성 이론(Berkowitz, 1989)의 가설을 토대로 부정적 정서성이나 분노라는 정서와 공격성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선행연구(성미영, 2006; Arsenio et al., 2000; Rothbart, Ahadi, & Hershey, 1994)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이나 분노표현 정도는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 및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최근 들어 연구자들이 기쁨이라는 긍정적 정서성에 관심을 가지고 기쁨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고찰하였지만, 이에 대한 연구들은 일치되지 않

는 결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Arsenio와 동료들(2000)은 평소에 보이는 기쁨이라는 기본 정서는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이 없지만 공격행동을 표출할 때 관찰된 기쁨의 수준이 공격성을 예측한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Schultz, Izard와 Bear(2004)는 교사가 평가한 기쁨이라는 긍정적 정서성이 직접적으로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즉, 기쁨의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서성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불일치하고 있어서, 부정적 정서성과 긍정적 정서성 뿐 아니라 정서성을 구성하는 개별정서인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이 분노를 강하게 느끼는 경우라도 반드시 공격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정서적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Saarni, 1999). 이러한 정서조절 능력과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들(한유진, 2006; Eisenberg & Fabes, 1992)은 정서조절이 아동의 공격성 및 행동문제를 예측한다고 보고했다. 즉, 정서의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서조절과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능력이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없고(김지현, 2006),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Underwood, 2003).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정 보처리 구성요소 및 정서요인 가운데 몇몇 요인

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나 외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또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아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이들 요인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관련 변인들이 각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아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독립변인인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에서 성차를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유아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및 정서요인이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이 유아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공격성 유형에 따라 관련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공격성(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해석, 목표설정, 반응생성, 반응평가), 정서요인(정서지식, 정서성, 정서조절)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공격성(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해석, 목표설정, 반응생성, 반응평가)와 정서요인(정서지식, 정서성, 정서조절)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해석, 목표설정, 반응생성, 반응평가)와 정서요인(정서지식, 정서성, 정서조절)이 유아의 공격성(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9곳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165명을 임의 선정한 다음, 예비조사를 통해 사회정보처리 과제의 친사회적 자극과 적대적 자극 상황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일반 유아 112명과 유아를 9개월 이상 보육한 담임교사 11명, 총 12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sup>1)</sup>

연구대상은 <표 1>과 같이 남아 56명, 여아 56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유아의 평균 월령은 65.50개월이고 남이는 65.82개월, 여아는 65.18개월이었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

집단	수	평균월령(월령범위)
남아	56명	65.82(59-71개월)
여아	56명	65.18(59-71개월)
전체	112명	65.50(59-71개월)

### 2. 연구도구

#### 1)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은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행동 척도(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Teacher

1) 이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 165명을 임의 선정한 다음, 사회정보처리 과제의 친사회적 자극과 적대적 자극 상황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하는 일반 유아 112명과 유아를 9개월 이상 보육한 담임교사 11명, 총 12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명백하게 친사회적이거나 적대적인 자극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는 유아를 포함했을 경우 인지능력의 차이가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친사회적 자극과 적대적 자극 상황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하는 일반 유아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

<표 2> 연구도구

측정변수(점수범위)		도구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8-40) 관계적 공격성(8-40)	교사용 질문지	
사회정보처리	해석(0-6)	사회정보처리 과제	
	목표설정(0-6)		
	반응 생성		친사회적 자극상황/ 적대적 자극상황/ 애매한 자극상황
	반응 평가		
정서요인	정서지식(0-32)	정서표현지식 과제 정서상황지식 과제	
	정서성	긍정적 정서성 : 기쁨(5-25)	교사용 질문지
		부정적 정서성 : 분노(5-25) 슬픔(5-25) 두려움(5-25)	
		정서조절(24-120)	

Form; Crick et al., 1997)를 기초로 질문지를 구성해 해당 유아를 보육하는 담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Ostrov & Keating, 2004)에 따르면, PSBS를 이용해 교사가 유아의 공격성을 평가한 결과와 관찰법을 이용한 유아의 공격성 평가가 일치했으며, 교사가 부모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아가 보이는 행동특성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Zelli, Dodge, Lochman, Laird,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9), 교사가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외현적 공격성에 관한 질문 8문항,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질문 8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외현적 공격성을 평가하는 문항에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발로 차거나 때린다’와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겠다고 말로 위협한다’ 등이 있다. 관계적 공격성을 평가하는 문항에는 ‘이 아이는 또래에게 다른 한 아이와 놀지 말라고 말한다’와 ‘이 아이는 친구에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같이 놀지 않겠다고 말한다’ 등이 있다. 외현적 공격성 문항의 신뢰도는 .96, 관계적 공격성 문항의 신뢰도는 .94였다. 이 척도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순으로 평정되는 5점 리커트 방식이다. 따라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 8점에서 40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해석, 목표설정, 반응생성, 반응평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정보처리 과제는 Crick과 Dodge(1996), Dodge, Laird, Lochman,

Zelli와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2002), 그리고 Werner와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선행연구(Crick & Dodge, 1996; Dodge et al., 2002)에서 사용된 학령기 아동을 위한 사회정보처리 과제의 자극 상황은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으로 주로 상대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자극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보처리와 공격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정보처리 과제에 친사회적 자극, 적대적 자극, 애매한 자극 상황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또래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하기 위해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과 보육교사 각 5인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과제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7가지 상황과제를 예비조사<sup>2)</sup>를 통하여 또래자극, 또래진입, 또래갈등 상황(예 : 블록을 이용해 만든 것을 또래가 건드려 망가뜨리는 상황, 공놀이에 끼워달라고 하는데 또래가 거절하는 상황 등)을 포함한 총 6가지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과제의 주인공은 유아와 동일한 성별의 인물로 설정하였고 조사 대상 유아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인공의 얼굴을 비워놓았다. 자극을 제공하는 또래의 경우에는 또래자극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대의 감정이나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얼굴을 비워놓았다. 사회정보처리 과제에 사용된 그림의 수는 남아용 17장과 여아용 17장으로 총 34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보처리의 구성요소를 해

석, 목표설정, 반응생성, 반응평가로 정의하였으며, 조사 대상 유아에게 사회정보처리 과제의 그림을 제시한 이후에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에 대한 순차적인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고, 유아의 응답에 따라 구성요소별로 채점을 실시하였다(예를 들어,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해석),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목표설정), “이럴 때 어떻게 할거니?”(반응생성), “이렇게 하면 원하는대로 될까?”(반응평가)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그림과제는 총 6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구성요소의 전체 점수는 6가지 상황에 대한 구성요소별 응답을 채점한 이후에 각 구성요소별로 산출된 점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채점은 선행연구(Crick & Dodge, 1996; Dodge et al., 2002; Werner et al., 2006)를 토대로 적대적, 도구적, 공격적인 응답에 1점, 그렇지 않은 응답에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보처리를 적대적 또는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즉 해석, 목표설정, 반응생성, 반응평가는 각각 0~6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반응생성과 반응평가는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 반응으로 구분하여 채점하였다. 사회정보처리 과제의 채점은 구조화된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며 반응생성에 대한 채점은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자 2인이 함께 채점하였다. 사회정보처리 과제 측정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아동학 전공자 3인에 의해 평정된 사회정보처리 반응생성 측정의 신뢰도는 .8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2) 예비조사에 사용된 7가지 상황과제 가운데 유아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수정하고 조사시간이 길어져 유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감안하여 총 6가지 과제로 수정하였다.

### 3) 정서요인(정서지식, 정서성, 정서조절)

#### (1) 정서지식

이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지식은 선행연구

(Denham et al., 1990; Garner, Jones, & Miner, 1994)를 토대로 정서표현지식 과제와 정서상황 지식 과제 도구를 구성하여 조사자와 유아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서표현지식은 유아가 정서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자가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의 4가지 기본 정서를 보이는 얼굴 표정의 그림카드 4장을 무작위로 1장씩 유아에게 제시한다. 유아는 그림카드가 제시될 때마다 카드에 그려진 각 표정에 명칭을 부여하도록 질문을 받고 대답한다(“이 얼굴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다음에는 4장의 카드를 유아 앞에 일렬로 제시하고 조사자가 질문한 정서명칭과 일치하는 얼굴 표정의 카드를 가리키도록 한다(“슬픈 얼굴은 어디 있지?”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점수는 선행 연구(Denham et al., 1990; Garner et al., 1994)를 토대로 유아가 부여한 정서명칭이 정확하거나(예, 기쁘요, 슬퍼요) 가리킨 그림이 정답이면 2점, 유아가 부여한 정서 명칭이 행동을 묘사하거나(예, 울어요) 긍정/부정 영역만 일치하면(예, 슬픈 얼굴 표정을 가리켜야 하는데 화난 얼굴 표정을 가리킨 경우) 1점, 틀린 응답이면 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정서표현지식 과제는 0~16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유아의 정서상황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의 4가지 기본 정서를 야기하는 사건이 묘사된 상황그림카드를 유아에게 제시하고 이야기의 주인공이 느끼는 정서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구하는 정서상황지식 과제를 이용하였다. 이야기는 Garner와 동료들(1994)이 제시한 8가지 이야기를 우리 문화에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야기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의 4가지 기본 정서마다 2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야기 주인공의 얼굴표정은 모두 비어있다. 유아에게 상황지식 그림카드를 설명과 함께 제시한 이후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느낄지 물었다. 그런 다음에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의 4가지 기본 정서를 보이는 얼굴 표정의 그림카드 4장을 무작위로 1장씩 유아에게 제시하고 고르게 한다. 유아가 가리킨 그림이 정답이면 2점, 긍정/부정 영역이 일치하면 1점, 틀린 응답이면 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정서상황지식도 정서표현지식과 마찬가지로 0~16점의 점수범위를 보이며, 전체 정서지식의 점수범위는 0~32점이다. 정서지식 과제 측정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의 전체 응답에 대해 아동학 전공자 3인이 평정한 결과 측정의 신뢰도는 .95였다.

## (2) 정서성 및 정서조절

먼저 유아의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와 동료들(1994)이 개발한 양육자용 아동행동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s : CBQ)를 토대로 CBQ의 하위영역 중 정서성 관련 문항을 이용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정서성은 기질의 한 요소이므로 질문지는 평상시에 양육과정에서 유아의 정서경험과 표출을 자주 목격하고 9개월 이상 종일보육을 담당한 담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정서성 발달 영역은 크게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되는데, 긍정적 정서성(예,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웃는다)은 기쁨의 정서상태를 의미하고, 부정적 정서성(예, 하던 일이 안 풀리면 실망한다)은 분노/좌절, 두려움, 슬픔의 정서 상태를 포함한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방식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해당하는 정서상태를 많이 경험하고 표출함을 의미한다. 긍정적 정서

성 문항의 신뢰도는 .88, 부정적 정서성 문항의 신뢰도는 .81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부정적 정서성의 하위범주별 신뢰도는 분노 .84, 두려움 .78로 높은 편이었으며, 슬픔의 신뢰도는 .53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5문항으로 구성된 기쁨, 즉 긍정적 정서성의 경우 5~2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분노, 두려움, 슬픔 각 5문항으로 구성된 부정적 정서성은 범주별로 5~25점, 전체 부정적 정서성은 15점~75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정서조절 체크리스트(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 ERC)를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ERC는 부모나 교사 등 유아를 잘 아는 성인이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평소 유아의 정서표출과 정서조절 관련 행동을 많이 접하는 담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정서적 유연성 부족과 정서 불안, 부정적 정서의 비조절로 구성된 불안/부정성 범주에 속하는 15문항(예를 들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쉽게 화를 낸다’)과 상황에 적절한 정서표시, 공감, 정서자각으로 구성된 정서조절 범주의 9문항(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관심을 보이고 함께 공감한다’,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두렵고 무서울 때 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5점 리커트 방식이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24~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정서를 적절하게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조절 질문지 문항의 신뢰도는 .86으로 높은 편이었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정서요인을 측정하는 도구가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2008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1차 예비조사,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은 34명의 4, 5세 유아와 담당 보육교사 3명, 총 37명이었다.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2009년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의 어린이집 9곳에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만 5세인 유아 1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도구 및 질문지를 이용하여 본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훈련받은 검사자 3명이 실시하였다. 조사는 기관내의 분리된 공간에서 검사자와 유아의 일대일 면접으로 실시되었고, 한 유아 당 2회에 걸쳐 각각 25분씩 조사하였다.

#### 2) 자료분석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인 유아 165명 가운데 친사회적 자극과 적대적 자극 상황에서 제시된 상대 유아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한 유아 11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과 정서성 및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의 담임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 112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성별에 따른 유아의 공격성

변수	전체 (n=112)	남아 (n=56)	여아 (n=56)	t
	M(SD)	M(SD)	M(SD)	
외현적 공격성	14.96( 7.83)	17.70( 8.19)	12.23( 6.43)	3.927***
관계적 공격성	17.38( 7.85)	18.46( 7.17)	16.29( 8.41)	1.476
전체 공격성	32.34(14.70)	36.16(14.47)	28.52(14.03)	2.838***

\*\*p < .01. \*\*\*p < .001.

### III 결과분석

#### 1. 성별에 따른 유아의 공격성,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정서요인 비교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외현적 공격성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공격성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전체 공격성 수준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838, p < .01). 공격성 유형에 따른 성

차는 외현적 공격성에서만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3.927, p < .001)). 남아는 평균 17.70점(SD = 8.19)으로 여아(M = 12.23, SD = 6.43) 보다 외현적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 수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아의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해석, 목표설정, 반응생성, 반응평가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대부분의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해석 점수는 전반적으로 대상

<표 4>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별 점수

변수	전체 (n=112)	남아 (n=56)	여아 (n=56)	t	
	M(SD)	M(SD)	M(SD)		
해석	2.99(1.04)	3.18(1.08)	2.80( .96)	1.940	
목표설정	4.90(1.33)	5.21(1.11)	4.59(1.46)	2.550**	
반응생성	외현적 공격	1.61(1.70)	2.32(1.82)	.89(1.23)	4.883***
	관계적 공격	.71( .93)	.59( .80)	.82(1.03)	-1.330
반응평가	외현적 공격	1.66(1.68)	2.27(1.77)	1.05(1.34)	4.087***
	관계적 공격	.69(1.01)	.55( .78)	.82(1.18)	-1.417

\*\*p < .01. \*\*\*p < .001.

<표 5>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요인별 점수

변수	전체 (n=112)	남아 (n=56)	여아 (n=56)	t
	M(SD)	M(SD)	M(SD)	
정서지식	26.96( 2.15)	26.68( 2.09)	27.25( 2.19)	-1.412
긍정적 정서성 기쁨	18.50( 4.19)	18.80( 4.23)	18.20( 4.17)	.765
부정적 정서성	40.83( 7.94)	40.89( 8.25)	40.77( 7.70)	.083
분노	12.86( 3.77)	13.43( 3.69)	12.29( 3.80)	1.616
슬픔	12.86( 2.74)	12.89( 2.83)	12.82( 2.66)	.137
두려움	15.12( 3.87)	14.57( 4.22)	15.66( 3.43)	-1.499
정서조절	85.53(11.72)	82.23(11.60)	87.82(11.48)	-2.104*

\* $p < .05$ .

유아의 적대적 해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 = 2.99$ ,  $SD = 1.39$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목표설정에서 남아( $M = 5.21$ ,  $SD = 1.11$ )가 여아( $M = 4.59$ ,  $SD = 1.46$ ) 보다 공격적 목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550$ ,  $p < .01$ ). 또한 남아( $M = 2.32$ ,  $SD = 1.82$ )가 여아( $M = .89$ ,  $SD = 1.23$ ) 보다 외현적 공격반응을 더 많이 산출하고( $t = 4.883$ ,  $p < .001$ ), 남아( $M = 2.27$ ,  $SD = 1.77$ )가 여아( $M = 1.05$ ,  $SD = 1.34$ ) 보다 외현적 공격반응을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t = 4.087$ ,  $p < .001$ ).

반면에 대상 유아의 관계적 공격 반응의 생성 및 평가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정서요인은 정서지식, 긍정적 정서성(기쁨), 부정적 정서성(분노, 슬픔, 두려움) 및 정서조절로 구성되었다. 성별에 따른 정서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정서요인 가운데 정서조절 점수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여아( $M = 87.82$ ,  $SD = 11.48$ )가 남아( $M = 82.23$ ,  $SD = 11.60$ ) 보다 정서조절 점수가 높아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t = -2.104$ ,  $p < .05$ ).

## 2. 유아의 공격성,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및 정서요인 간의 관계

종속변인인 유아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독립변인인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가운데 해석( $r = .373$ ,  $p < .01$ ), 외현적 공격 반응생성( $r = .682$ ,  $p < .01$ ), 외현적 공격 반응평가( $r = .663$ ,  $p < .01$ )가 외현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갈등이 유발될만한 가상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반응생성에서 외현적 공격 반응을 생성하고, 외현적 공격반응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을 보이는 유아일수록 교사가 평가한 외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 요인 가운데 정서지식( $r = -.464$ ,  $p < .01$ ), 정서조절( $r = -.634$ ,  $p < .01$ )은 외현적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부정적 정서성 전체( $r = .288$ ,  $p < .01$ )와 부정적 정서성 하위요인 가운데서는 분노( $r = .540$ ,  $p < .01$ ), 슬픔( $r = .208$ ,  $p < .05$ )이 외현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 유아의 공격성,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정서요인의 상관관계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해석	.373**	.267**	
	목표설정	.104	.022	
	외현적 공격 반응생성	.682**	.511**	
	관계적 공격 반응생성	.107	.361**	
	외현적 공격 반응평가	.663**	.580**	
	관계적 공격 반응평가	.123	.383**	
정서요인	정서지식	-.464**	-.416**	
	긍정적 정서성(기쁨)	-.150	-.074	
	전체	.288**	.448**	
	부정적 정서성	분노	.540**	.537**
		슬픔	.208*	.394**
		두려움	-.081	.117
	정서조절	-.634**	-.452**	

\* $p < .05$ . \*\* $p < .01$ .

따라서 정서지식 수준과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유아는 외현적 공격성 수준이 낮았으며, 전체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고, 이 가운데 분노와 슬픔의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외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가운데 해석( $r = .267, p < .01$ ), 외현적 공격 반응생성( $r = .511, p < .01$ ), 관계적 공격 반응생성( $r = .361, p < .01$ ), 외현적 공격 반응평가( $r = .580, p < .01$ ), 관계적 공격 반응평가( $r = .383, p < .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갈등이 유발될만한 가상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반응생성에서 외현적 공격 반응 뿐 아니라 관계적 공격 반응을 생성하고, 외현적 공격반응 및 관계적 공격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아일수록 교사가 평가한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서지식( $r = -.416, p < .01$ ), 정서조절( $r = -.452, p < .01$ )은 관계적 공격성과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고, 부정적 정서성 전체( $r = .448, p < .01$ ), 부정적 정서성의 하위요인으로는 분노( $r = .537, p < .01$ ), 슬픔( $r = .394, p < .01$ )이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서지식 수준과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유아는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낮았으며, 전체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고, 이 가운데 분노와 슬픔의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관계적 공격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종속변인인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r = .757, p < .01$ ), 외현적 공격수준이 높은 유아는 관계적 공격수준도 높았다.

### 3.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의 영향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각

<표 7>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 예측변수

	예측변수	B	$\beta$	$R^2$	수정된 $R^2$	F
1	외현적 공격 반응생성	3.141	.682***	.465	.461	95.755***
2	정서조절	-.268	-.401***	.591	.583	78.723***
3	분노의 정서성	.429	.191**	.618	.607	58.150***
4	정서지식	-.539	-.148*	.635	.621	46.552***

\* $p < .05$ . \*\* $p < .01$ . \*\*\* $p < .001$ .

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적의 회귀모형을 찾기 위해 성별을 가변수로 처리한 후에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과 잔차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분산팽창지수(VIF)가 외현적 공격성 1.258, 관계적 공격성 1.045로 안정적이었고, 더빈 왓슨(Durbin-Watson) 지수는 외현적 공격성 1.584, 관계적 공격성 1.676로 잔차간 상관관계도 높지 않아 중다회귀분석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부터 투입된 최종회귀모형은 <표 7>과 같다.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는 4가지였다. 표준화계수인  $\beta$ 값을 비교하면 사회정보처리 구

성요소 가운데 반응생성과 정서요인 가운데정서 조절( $\beta = -.401, p < .001$ ), 분노의 정서성( $\beta = .191, p < .01$ ), 정서지식( $\beta = -.148, p < .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이 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최종 회귀모형은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의 62.1%를 설명한다( $F = 46.552, df = 4, 107, p < .001$ ).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회귀모형은 <표 8>과 같다.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변수는 4가지로, 표준화계수인  $\beta$ 값을 비교하면 분노의 정서성( $\beta = .537, p < .001$ ), 정서지식( $\beta = -.308, p < .001$ ), 관계적 공격 반응생성( $\beta = .262, p < .001$ )과 해석( $\beta = .167, p < .05$ )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이 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최종 회귀모형은 관계적 공격성의 45.2%를 설명한다( $F = 23.855, df = 5, 107, p < .001$ ).

<표 8>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 예측변수

	예측변수	B	$\beta$	$R^2$	수정된 $R^2$	F
1	분노의 정서성	1.119	.537***	.289	.282	44.654***
2	정서지식	-1.125	-.308***	.379	.367	33.207***
3	관계적 공격 반응생성	2.217	.262***	.445	.429	28.846***
4	해석	1.264	.167*	.471	.452	23.855***

\* $p < .05$ . \*\*\*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아동 및 청소년의 강력범죄나 비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발달 초기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행동을 중재 및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공격성에서 성별에 따른 공격성 분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유아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전체 공격성 수준과 외현적 공격성 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아의 전체 공격성 수준이 여아의 전체 공격성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아의 외현적 공격 수준이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외현적 공격성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 수준이 여아보다 높다는 학령기 아동과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Crick et al., 1997; Crick, Ostrov, & Werner, 2006; Ostrov & Keating, 2004)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 수준은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 수준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남아, 여아 모두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외현적 공격성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관계적 공격성 연구에서 성차가 나오지 않은 연구(Hart et al., 1998)나 남아가 여아보다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McEvoy et al., 2003; Tomada & Schneider, 1997)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유아가 보이는 관계적 공격행동의 패턴이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

과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아동은 청소년과 달리 공격행동이 성별에 따라 분화되지 않고 외현적 공격행동과 관계적 공격행동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Crain, Finch, & Foster, 2005). 또한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외현적 공격행동이 언어나 표정 등으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행동보다 교사나 또래에 의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집에서 외현적 공격행동 대신에 관계적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들(Bonica et al., 2003; Crick et al., 1997)에서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남아보다 높다는 결과도 있으므로 추후에 유아의 공격성을 평정하는 방법을 보완하여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유아의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및 정서요인과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의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가운데 해석과 외현적 공격 반응생성, 외현적 공격 반응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적 공격 점수가 높았다. 즉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할수록, 외현적 공격반응을 많이 생성하고 외현적 공격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외현적 공격행동을 많이 보였다.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반응생성과 반응평가에서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 반응생성과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 반응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또래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할수록, 외현적 공격반응과 관계적 공격 반응을 많이 생성하고 외현적 공격반응과 관계적 공격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관계적 공

격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가운데 적대적 해석, 공격적 반응생성 및 반응평가와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Crick et al., 2002; Dodge, Bates, & Pettit, 1990; Dodge & Coie, 1987)를 지지하는 것으로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극 단서에 대한 인지적 처리과정 이 공격적인 경향을 보일수록 공격유형과 상관 없이 유아가 공격행동을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정보처리라는 사회인지적 요소가 유아의 공격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유아의 정서요인과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할수록, 그리고 분노와 슬픔의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서지식과 정서조절 능력이 행동문제나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이강이 · 성미영, 2003; 한유진, 2006; Arsenio et al., 2000; Denham, Caverly, Schmidt, Blair, DeMulder, Caal, Hamada, & Mason, 2002; Eisenberg, Fabes, Guthrie, Murphy, Maszk, & Holmgren, 1996; Lemerise, Gregory, & Fredstrom, 2005; Sullivan, Helms, Kliewer, & Goodman,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사회적 상황에서 분노가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Arsenio et al., 2000; Denham et al., 2002)를 지지하는 결과로 분노와 공격성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좌절-공격가설(Berkowitz, 1989)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슬픔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Sullivan et al., 201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유능한 유아일수록

또래갈등 상황에서 공격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능력이 또래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긍정적 정서성에 해당하는 기쁨의 정서는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 및 외현적 공격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쁨의 정서가 공격성에 대해 보호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Schultz et al., 2004)와는 차이를 보여 긍정적 정서성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유아의 공격성 형태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사회정보처리의 구성요소 가운데 외현적 공격 반응생성이었다. 또한 외현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정서요인은 정서조절, 분노, 정서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서요인에 비해 사회정보처리의 구성요소가 외현적 공격성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지현, 2006; Orobio de Castro, Merk, Koops, Veerman, & Bosch, 2005)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반응생성에서 외현적 공격반응을 생성하는 수준이 높은 아동은 그러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실제로 외현적 공격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 선행연구들은 반응생성 이외에도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가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정서요인은

정서조절과 정서지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분노, 정서조절과 행동문제의 관계, 부정적 정서와 공격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지현, 2006; Eisenberg et al., 1996; Orobio de Castro et al., 2005)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분노를 자주 경험하고 표출하는 아동일수록 외현적 공격성 수준이 높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표출되는 외현적 공격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서지식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의 예측요인이라는 결과는 정서지식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한유진, 2006; Arsenio et al., 2000; Denham et al., 200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아동이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상대의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이어서 유능한 행동이 나오게 하는데 핵심이 된다. 즉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와 자기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공격행동으로부터 방어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분노의 정서성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지식과 사회정보처리의 구성요소 가운데 관계적 공격 반응생성, 해석 순으로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공격행동이 나올 때 자극에 대해서 분노를 경험하고 표출하는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Marsee & Frick, 2007; Niu, 2009)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정서지식이 관계적 공격성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관계적 공격성에 정서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한유진, 2006; Garner & Lemerise, 2007; Marsee & Frick, 2007). 이는 정서적 능력과 유아의 사회적응이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들(Eisenberg et al., 1996; Eisenberg, Guthrie, Fabes, Reiser, Murphy, & Holgren, 1997)과 맥락을 같이 하며, 정서적으로 유능하지 않은 유아가 관계적 공격성을 더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는 관계적 공격 반응생성과 해석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이 각각 6%와 2%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남아, 여아를 모두 포함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정보처리의 해석과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김지현, 2006; Crick et al., 2002)의 결과를 지지하는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학령기의 여아를 대상으로 사회정보처리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힌 선행연구(Crain et al., 2005)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Crain과 동료들(2005)은 학령기 아동 가운데 여아가 더 높은 관계적 공격성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학령기 여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의 영향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에서 차이를 보인 점은 공격성의 조기 중재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사회적응(Crick & Dodge, 1994)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사회적 단서를 처리하는 인지과정의 결함이 아동의 공격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인지-행동 중재 프로그램이 지지를 받아 왔다(Orobio de Castro et al., 2005).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서 정서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서적 능력의 결함이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공격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공격성 유형에 따라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아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과 함께 정서지식과 분노, 슬픔 등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조절 등의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교사평가가 또래평가나 관찰법으로 이루어진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 평가와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Ostrov & Keating, 2004)를 근거로 교사평정법을 이용했으나 다른 평정법과의 비교는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여러 평정법을 함께 이용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5세 유아로 한정해 공격성의 발달적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더 큰 표본의 유아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종단적 접근법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유아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공격성의 예방과 조기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곽금주(1998). 사회정보처리능력의 발달(II) : 취학전 아동기.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 1-11.

김지현(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미영(200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7, 285-300.

이강이 · 성미영(2003). 유아의 정서지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 시설보호 유아와 일반 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24, 33-45.

한유진(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 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 1-15.

Arsenio, W .F., Cooperman, S., & Lover, A. (2000). Affective predictors of preschool children's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438-448.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y Bulletin*, 106, 59-73.

Björkqvist, K. (1994). Sex differences in physical, verbal, and indirect aggression : A review of recent research. *Sex Roles*, 30, 177-184.

Bonica, C., Yeshova, K., Arnold, D. H., Fisher, P. H., & Zeljo, A. (2003). Relational aggress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preschoolers. *Social Development*, 12, 551-562.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780-840). NY : Wiley.

Cook, E. T., Greenberg, M. T., & Kusche, C. A. (1994).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understanding,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2, 205-219.

Coy, K., Speltz, M. L., DeKlyen, M., & Jones, K.

- (2001). Social-cognitive processes in preschool boys with and without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107-119.
- Crain, M. M., Finch, C. L., & Foster, S. L. (2005). The relevance of th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for understanding relational aggression in girls. *Merrill-Palmer Quarterly*, 51, 213-249.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71-275.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 (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conflicts. *Child Development*, 73, 1134-1142.
-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131-142.
- Cummings, E. M., Iannotti, R. J., & Zahn-Waxler, C. (1989). Aggression between peers in early childhood : Individual continuity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60, 887-895.
- Denham, S., Blair, K.,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 238-256.
- Denham, S., Caverly, S., Schmidt, M., Blair, K., DeMulder, E., Caal, S., Hamada, H., & Mason, T. (2002). Preschool understanding of emotions : contributions to classroom anger a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 901-916.
- Denham, S., McKinley, M., Couchoud E. A., & Holt, R.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reschool peer ratings. *Child Development*, 61, 1145-1152.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78-1683.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Dodge, K. A., Coie, J. D., & Lynam, D. (2006).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 : Wiley.
- Dodge, K. A., Laird, R. D., Lochman, J. E., Zelli, A.,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02). Multidimensional latent-construct analysis of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atterns : Correlations with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Psychological Assessment*, 14, 60-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4, pp. 119-150). Newbury Park, CA : Sage.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Murphy, B. C., Maszk, P., & Holmgren, R. (1996).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problem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141-162.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Reiser, M., Murphy, B. C., & Holgren, R. (1997).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 295-311.
- Garner, P. W., & Lemerise, E. A. (2007). The roles of behavioral adjustment and conceptions of peers and emotions in preschool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57-71.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Lemerise, E. A., Gregory, D. S., & Fredstrom, B. K. (2005). The influence of provocateurs' emotion displays on th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of children varying in social adjustment and ag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0*, 344-366.
- Little, T. D., Jones, S. M., Henrich, C. C.,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122-133.
- Marsee & Frick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969-981.
- McEvoy, M. A., Estrem, T. L., & Olsen, M. L. (2003). Assessing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among preschool children : Intermethod agreem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3*, 53-63.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Ostrov, J. M., & Keating, C. F. (2004). Gender differences in preschool aggression during free play and structured interactions : An observatio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3*, 255-277.
- Orobio de Castro, B., Merk, W., Koops, W., Veerman, J., & Bosch, J. (2005). Emotions in sip and their relations with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referred aggressive boy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 105-116.
- Orobio de Castro, B., Veerman, J., Koops, W., Bosch, J., & Monshouwer, H. (2002). Hostile attribution of intent and aggressive behavior :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73*, 916-934.
- Quiggle, N. L., Garber, J., Panak, W. F.,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 Guilford.
- Schultz, D., Izard, C. E., & Bear, G. (2004). Children's emotion processing : Relations to emotionality and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371-387.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Child Development, 33*, 906-916.
- Sullivan, T. N., Helms, S. W., Kliewer, W., & Goodman, K. (2010). Associations between sadness and anger

- regulation coping, emotional expression, an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Development, 19*, 30-51.
- Tomada, G., & Schneider, B. H. (1997). Relational aggression, sex, and peer acceptance : Invariance across culture, stability over time and concordance among inform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01-609.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29-141.
- Underwood, M. K. (2004). Gender and peer relations : Are the two gender cultures really all that different? In J. B. Kupersmidt & K. A. Dodge (Eds.), *Children's peer relations : From development to intervention* (pp. 21-36). Washington, DC : APA Publications.
- Werner, R. S., Cassidy, K. W., & Juliano, M. (2006). The role of social cognitive abilities in preschoolers' aggressive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75-799.
- Werner, N., & Crick, R. (1999).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 615-623.

---

2010년 8월 26일 투고, 2010년 11월 8일 수정  
2010년 11월 11일 채택